

관광·쇼핑·문화 '큰 손' 중국인 대거 유입 기대

지역관광업계, 정부 관광활성화대책 환영

규제 풀려 외국인 인바운드 시장 확대

관광인프라 확충·유치 방안 마련 시급

외국인 호텔 숙박비 부가세(10%) 환급과 관광단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관광 육성책에 지역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호텔 인프라 개선과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관광 육성책에 지역 여행업계와 호텔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던 규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외국인 관광객이 넘어야 할 '문턱'이 낮아져 인바운드(외래객 입국)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중국과 인접한 지역 업계로선 이번 육성책이 중국 관광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는 앞다퉈 중국인 비자 발급을 완화해 쏟아져 나오는 중국 관광객을 선점하는 데 주

력했지만 한국과 자자체 등은 이 부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여행업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제조업, 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큰 손'"이라며 "중국인 인바운드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개별 여행객에게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그동안 호텔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 적은 있지만 외국인에게 직접 환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에 앞서 관광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오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광주의 현재 관광 여건으로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수익창출과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4000여명의 관광객들이 14만8급 대형 크루즈선 '로열 케리비안 마리나호'를 타고 광양항에 입항해 남도 관광을 했으나 준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찾아온다는 계획을 당일에 언론을 통해 알 정도였다"며 "백화점과 연계해 쇼핑을 유도했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번을 계기로 특급 호텔 등 숙박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호텔업계로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양한 행사와 전문 인력 수급을 통한 확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불황을 타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박재완 호텔부동파크 총지배인은 "호텔 등 숙박 여건을 개선하고 앞으로 있을 국제행사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벤트나 관광상품 개발에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는 특급 호텔 2곳(리마다, 휴리데이인 광주), 특2급 호텔 2곳(프라도, 신양파크), 무등파크 호텔 등 1급 관광호텔 6곳이 영업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외국인, 관광호텔서 자면 10% 할인

관광활성화대책...관광단지 부동산 취득세 깎아줘

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숙박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관광활성화 대책에는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비롯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 신청자에 한해 지불한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77년~1991년, 1994년, 2001~2004년, 2007~2008년, 2009년 등 5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아예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 경남·광주은행 인수 검토

하나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인수 가능성은 검토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6일 "엊그제 (매각) 공고가 나온 만큼 실무진에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하나금융이 지방은행 인수전에 참여한다면 경남은행보다

이와 달리 이번 대책에선 '사후 환급'을 하기로 한 것은 지난친 세수 감소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09년 당시에는 1000억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생겼다.

관광단지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 종문관광단지, 경주 보문관광단지, 부산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이제도는 올해 말 일률로 도래한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를 깎아준다.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유원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 등 4개 관광휴양시설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면 상당한 잠재투자를 끌어낼 것으로 문광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광주은행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가 치열하게 맞붙은 경남은행에 비해 광주은행 인수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다만 "이사회에 금융권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애로 현장체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7일 신용보증기금 광주북지점에서 일자리점장으로 위촉된 직원 신용보증 상담업무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현장을 체험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제공〉

6월 광주·전남 무역수지 4억 달러 흑자

작년동기 대비 수출 5%·수입 9% 줄어...상반기 누계 37억달러

지난달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83%)와 수송장비(6%)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동남아(82%), 중국(71%), EU(48%)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일본(32%), 중동(32%) 등으로 수출은 감소했다. 6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수출이 286억달러, 수입이 249억달러로 37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한 12억7000만달러, 수입은 1% 증가한 4억1000만달러로 무역수지 8

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83%)와 수송장비(6%)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수출품목은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등이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 수입은 석유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증가했고, 석탄, 철광, 철강재 등은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87.49 (+21.13)

코스닥지수 541.82 (+4.10)

금리(국고채 3년) 2.89% (+0.01)

원·달러 환율 1121.60원 (+3.60)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주요일정】

1.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 ② 전형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 ④ 등록기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독회학과(D.Min.)	○	-
	석사	신학과(Th.M.)	○	구약,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독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산좋고 물좋은 백운산 400고지

분양가(공원면적 포함)	대출혜택
18평(28평)	5940만원 가능
28평(26평)	9240만원 가능
56평(1실)	1억 8480만원 가능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 노블랜드 분양문의
H. 010-2928-0202 H. 010-3605-5000

수해차량 수리비 50% 할인

현대·기아차 수해지역 특별점검 서비스

현대·기아자동차는 17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차량의 신속한 정비지원을 위해 수해지역에 긴급지원단을 투입하는 '수해지역 특별점검 서비스'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 기간 수해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 점화장치 및 기타 전자장치 등에 대해 무상점검을 제공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서비스협력사 등으로 입고를 안내한다. 또 직영 서비스센터나 서비스협력사에서 수리

를 받는 수해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의 최대 50%(차자보험 미가입 고객에 한해 300만원 한도) 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해차량 고객들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수해차량 확인서'를 밝기면 제출하면 차량 대체 구입 시 해당 월 기본 판매 조건에 최대 3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해지역 피해차량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현대차 080-600-6000, 기아차 080-200-2000, 현대모비스 1588-7278)로 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5월 광주·전남 예금·대출 동반 증가

5월 중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이 꾸준한 증가 폭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13년 5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5538억원이 들어 전달(+5771억원)과 비슷한 증가 폭을 유지했다.

예금은행의 여신은 수신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증가폭(+8045억원 → +4065억원)이 축소됐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상호금융,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예

금이 늘어나면서 전달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2282억원 → +1473억원)했다.

또 금융기관의 총여신은 4526억원이 늘어 전달(+2268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예금은행의 여신은 기업대출(+1382억원 → +2217억원)과 가계대출(+379억원 → +2184억원)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1772억원 → +3756억원)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은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496억원 → +770억원)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 매년 평가

건전성 검사 대폭 강화

</